

국토교통부, 한-모로코 철도협력 강화로 미래 인프라 동반성장 - 2일 모로코 투자 담당 특임장관 만나 철도차량 분야 등 협력 강화 논의 -

□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월 28일(목) 오후 서울에서 카림 지단(Karim Zidane) 모로코 투자·공공정책융합평가 담당 특임장관을 만나 한-모로코 인프라 분야 협력방안을 논의했다.

○ 이날 면담은 경제, 투자, 무역 분야에 대한 한-모로코 고위급 협력 강화를 위해 방한한 카림 지단 장관의 적극적인 요청에 따라 마련됐다.

□ 모로코는 아프리카 유일의 고속철도 보유국이자 아프리카 대륙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철도 인프라를 개발하고 있는 나라로 한국과의 협력 잠재력이 높은 국가이다.

○ 또한, 스페인·포르투갈과 공동 개최하는 2030년 FIFA 월드컵 기간 중 안정적인 승객 수송을 위해 최대 5조원 규모의 철도차량 4종 공급 사업*도 추진 중이다.

* 고속철(320km/h급) 최대 144량, 준고속철(200km/h급) 최대 320량, 통근형 전동차(160km/h급) 최대 240량, 도시내 전동차(160km/h급) 최대 200량 등 총 904량

○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, 10월 두 차례에 걸쳐 장·차관급 수주 지원단을 모로코에 파견하는 등 모로코 철도차량 공급사업에 우리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.

□ 박 장관은 카림 지단 장관에게 “모로코는 유럽과 아프리카 시장 진출의 교두보로 모로코 시장을 눈여겨보는 한국기업들에게 좋은 투자처로서 관심을 끌고 있다” 면서,

○ “올해 한-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계기로 체결한 차관공여 협정을 토대로 대외경제협력기금(EDCF) 등 정책금융 지원을 통해 철도 등 인프라 분야의 한국기업 진출이 기대된다” 고 설명했다.

* EDCF(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) : 개발도상국의 산업화 및 경제발전을 지원하고 우리나라와 이들 국가와의 경제교류를 증진하기 위하여 1987년에 설립된 정책기금(유상원조)

- 모로코 투자·공공정책융합평가 담당 특임장관은 “모로코가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인프라 기반을 마련하고 있으며, 철도 등 교통 인프라 정책 분야에서의 협력과 투자 기회가 있을 것” 이라면서, “한국기업의 진출을 환영한다” 고 화답했다.
- 국토교통부는 모로코와 협업을 통해 주요 프로젝트에 대한 사업 타당성 조사, 민관협력사업(Public Private Partnership) 제안 등 투자 우선 지원 정책을 펴고 있는 모로코 해외건설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.
- 박 장관은 ”이번 협력이 중동 지역에 집중된 해외 건설 시장을 아프리카 등으로 확대해 나가는데 기여하게 될 것“이라고 강조했다.

2024. 11. 28.

국토교통부 대변인